

07

자원 순환 촉진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추진목표

-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그린패키징 검토 및 적용 (~2025)
- 에코라벨링을 통한 그린제품 점진적 확대 (~2025)

LG생활건강은 2025년까지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그린패키징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 편의성 향상 등의 사회환경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마크나 문구 등을 표시한 에코라벨링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 패키징을 통한 지속가능 포장 실현'을 비전으로 포장재 중량 최적화, 재활용성 개선 및 EPR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가능 패키지 개발을 위한 LG생활건강의 그린 패키징 가이드를 통해 용기중량, 재질, 재활용성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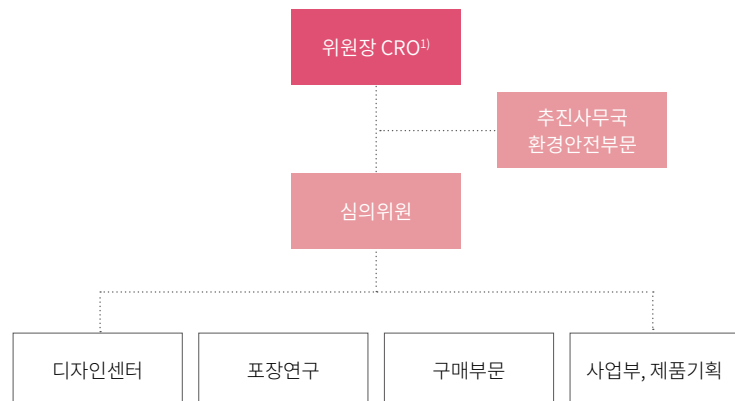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 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중심의 순환경제적 관점에서 순환자원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친환경적 공정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재의 환경 영향 감축 노력

그린제품 심의협의회 활동

지속가능한 그린패키징 구현을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그린제품 심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RO를 위원장으로 하여 디자인, 포장연구, 구매, 사업부, 제품기획 부서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전 개발단계부터 그린패키징 제안, 그린레벨 등급 이슈 제안 및 심의를 진행하며, 최근 급변하는 패키징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내용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제품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그린제품 심의협의회 운영을 통해 테크와 샤프란의 이중캡 높이 축소 및 홈스타 750ml 포장재 무게 감소를 통한 용기 감량화, 리엔 백단향과 서향의 재질 변경, 히말라야 핑크솔트 펄핑치약의 재활용성 개선 등에 대한 과제를 실행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및 원가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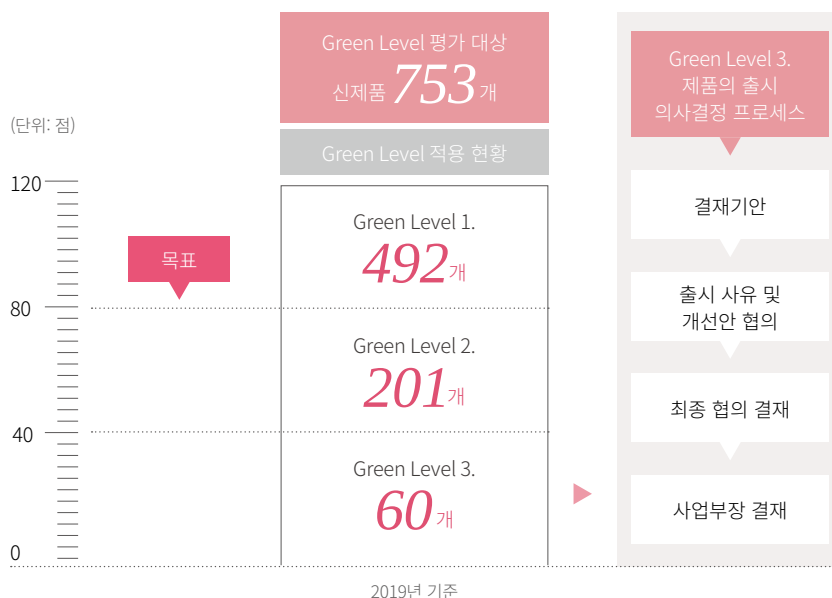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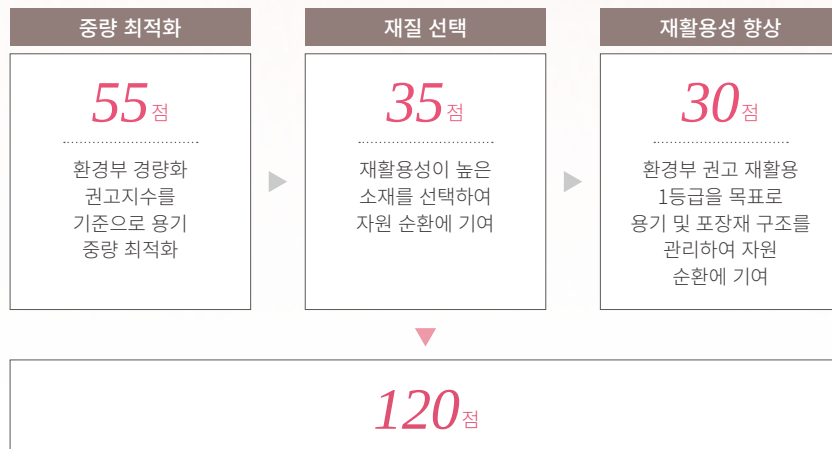
그린제품 심의협의회



1) CRO: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그린패키징 체계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포장재를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패키징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패키징 가이드는 포장재의 중량, 체적, 재질, 재활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신제품 출시 전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LG생활건강 고유의 평가 척도입니다. 그린패키징 결과는 용기 감량화, 재질 개선, 재활용성 개선으로 구분하여 해당 포장재의 친환경성을 향상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린패키징 가이드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제도와 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CASE 그린패키징 적용 대표 제품



Green Level 적용 효과*



*전년 매출기준으로 환산한 효과

07

자원 순환 촉진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개선

LG생활건강은 2018년 4월 환경부와 체결한 '포장재 재질/구조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생활용품 및 음료 제품의 유색 페트 제품을 무색 페트로 변경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질 변경 외 용기 감량화, 재활용성 개선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약 2,185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대체하였으며, 3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약 152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재질 개선		
플라스틱 절감량(톤)	대표 브랜드	대표 제품
121	 아름다운마음상자	
재활용성 개선		
플라스틱 절감량(톤)	대표 브랜드	대표 제품
2,064	  	
용기 감량화		
플라스틱 절감량(톤)	대표 브랜드	대표 제품
152	 	

CASE 라벨 절취선 도입하여 재활용성 개선

자원 순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LG생활건강에서는 음료페트병에 부착된 페트 재질의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여 라벨에 대한 분리용이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절취선을 도입한 제품은 2019년 포장재 출고량 기준 약 15,600톤으로 환산됩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이용성평가 대상 제품을 개선하고 적용 제품을 확대하였으며 제품의 친환경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닛메이드 오렌지

태양의 마테차

토레타



CASE 일회용품 규제가 따른 쇼핑백 재질 변경

2019년 4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G생활건강은 재활용이 어려운 부직포 재질의 쇼핑백을 모조지 등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변경하여 재활용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약 37.9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0.4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CASE 화장품 공병 이벤트

고객이 구매한 제품을 사용 후에도 재사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병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 화장품 공병을 가져 오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회수된 공병은 각 지역 물류센터 및 전문업체로 전달하여 재사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SE Stylish & Eco-Friendly, 메소드



메소드는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로서,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CB-602R'이라고 하는 Recycle PET Chip을 제품 패키징에 적용하고 있으며 SCS Global Service로부터 관련 재활용 Chip 사용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CASE 무색 페트 사용으로 재활용 향상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색 페트용기에 대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씨그램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썬키스트 알로에 제품 등에 사용된 유색 페트용기를 무색 페트 용기로 변경한 결과 약 1,898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써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하는 모든 음료 제품은 100% 무색 페트로 전환되었습니다.



CASE 포장재 재활용 1등급 인증

포장재의 제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린패키징 기준을 접목하여 출시된 세탁세제 1종, 주방세제 1종에 대해 2019년 6월 '재활용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된 제품은 단일재질 용기류 제품이며 포장재 몸체와 부자재(마개, 라벨 등) 모두 동일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7년을 시작으로 2018년 6종, 2019년 2종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 1등급 인증을 받아 총 10개의 재활용 1등급 인증 제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포장재 등급평가제도 대응과 함께 재활용 등급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친환경 생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9 포장재 재활용 실적

포장재	총 중량 (톤)	재활용률 (총 중량 대비 %)
금속캔	280	100
유리병	3,319	85.8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20,718	79.0

* 2018년 20,463톤(재활용률 77.2%), 2017년 22,106톤(76.5%), 2016년 20,801톤(76.5%)